

수행풍토·종단 정체성 바로 세우기 '솔선'



동산대종사

“은사이신 용성 스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화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때 일정 때에 정화를 해 보려고 하였지만 반일자로, 독립운동가로 매도하고 너무도 압력을 가해서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하셨어요. '정화 이것을 꼭 이루어서 출가승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해쌍수만 하지 말고 계정해 삼수를 행해야 한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미승들을 가르칠 때에도 '사미율의를 철저히 가르치도록 해서 수행풍토를 반드시 되찾아야 불조해명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청담 경산 스님은 '어른스님 말씀을 우리가 못알아 들었습니까?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시곤 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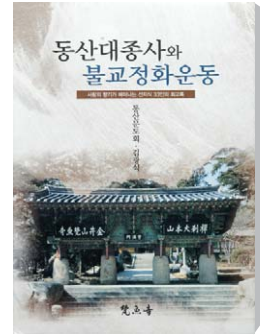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동산 스님이 동산 스님(1888-1965)

을 회고하는 대목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선지식으로 추앙 받는 동산 스님은 항일정신과 민족불교정신으로 일제에 '간백서'를 제출했던 용성 스님의 정신을 이어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했던 거목이었다. 동산 스님은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발의했던 장본인이며 입적하는 1965년까지 비구 종단의 수행풍토를 확립하고자 솔선수행했던 뜨거운 선승이었다.

동산 스님의 문도들이 스승의 위업을 현창하고 유지를 받들기 위해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을 묶었다. 동산 스님의 향훈을 간직하고 있는 스님과 제자 33명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구술사서다. 수행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담당하고 자상하던 종모를 사숙한 후배스님들의 증언과 큰스님으로 모시면서 보고 들은 가르침을 잊지 않은 제자자들의 기억이 한편의 책을 이룬 것이다.

“동산 스님은 매일 마당을 쓰는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동산문도회 김광식 지음
영광도서 펴냄 | 2만7000원



데 쓸 것이 없어도 매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산 스님의 청소에 서 청소하는 것만 보면 안됩니다. 우리들의 공부도 마찬가지로요.” (석산 스님)

“[정화운동 당시] 늘 조계사에 주석하시니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것 같으시고, 이념적으로 가장 확고하고, 그러면서 급진적인 분이 동산 스님이십니다.” (인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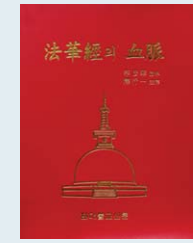
“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의 정화정신을 구현한 것은 으뜸이고 정화불사의 그 기원은 병인년 1926년 5월, 9월 두차례 있었던 견백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문 스님)

동산문도회와 부천대 김광식 교수(대각사상연구회 연구부장)가 기획 취재 정리한 이 책은 동산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품모와 정화불사의 대의와 과정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그간 동산 스님 문집은 <동산대종사 석영첩(1967)>과 <동산대종사 문집(1998)>이 나왔다. 동산문도회는 이 책의 발간을 문도 화합을 기하며 범어사의 역사와 전통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불교정화운동연구회와 장학재단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편집 법화경을 널리 유포하라



법화경의 혁명
석행일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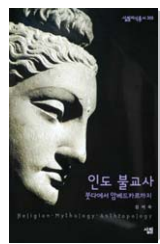
“스승이신 법화대종사께서는 늘 말씀 하시기를 '법화의 증생을 구제하는 길은 오직 <법화경>을 널리 유포하는 것이 이 길만이 국가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이미 입멸하시고 안계시지만, 진정으로 스승의 뜻을 받들고 <법화경>을 흥통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평생 <법화경>을 연구하고 수행하며 영산법화사(경남 진해)를 건립해 법화사상을 유포했던 법화대종사(1912-1977)의 '법화사상'을 제자인 석행일 스님이 묶었다. 스승이 평소 강조했던 구절들을 '대'로 정리하고 <법화경>의 각 품들은 먼저 요점을 상세히 정리하고 원문과 법화대종사의 '논해'에 이어 행일 스님이 주석하는 형식으로 편찬했다. 필요에 따라 용어풀이를 따로 했고 영험담 등도 삼입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원본은 구마라집의 한역본이다.

천태 지자 대사는 부처님의 설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법화경>은 부처님이 성도 이후 화엄부(21일) 아함부(12년) 방등부(8년) 반야부(21년)를 설하고 난 뒤 입적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설한 가르침으로 '회상승 법문'이라 말한다.

임연태 기자

각 시대별 핵심적인 불교 사상 해설 인도 불교의 모든 것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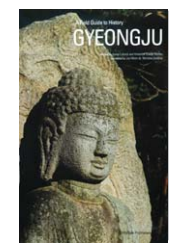
**인도불교사
붓다에서 암베드카르까지**
김미숙 지음
살림 펴냄 | 3300원

인도 불교의 시발적인 붓다에서부터 불가촉천민들의 대대적인 개종을 이끌어 낸 암베드카르에 이르기까지, 인도 불교 전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인도 불교사>가 나왔다. 살림지식총서 309권 <인도 불교사>는 인도 불교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다. 각 시대별로 핵심적인 불교 사상을 해설해, 간략한 개론서 역할도 겸하고 있다.

저자 김미숙 박사는 '붓다로부터 시작된 인도의 불교, 그 역사를 아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단언한다. 거기에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붓다의 발자국> <불교 문화 이야기> <붓다의 깨달음> <불교사의 이해> 등을 펴낸 저자가 바라보는 인도 불교사의 세계 속으로 떠나보자.

강지연 기자

테마별 코스는 팀 경주 답사 여행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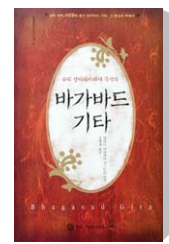
Gyeongju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지음
돌베개 펴냄 | 2만7000원 (27달러)

외국인들을 위한 역사 도시 '경주' 답사여행 가이드북 <Gyeongju>가 나왔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발로 걷는 답사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영문 여행서다. 울 커틀러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코스에서부터 건축의 특성, 전설, 각 유적지의 유물들까지 세심하게 수록했다.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고대 신라의 유적을 비롯해 감포길, 남산과 토함산, 남산, 경주 시내 등 12개의 코스를 중심으로 경주 답사여행을 안내한다. 이 외에도 경주를 더욱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테마별 코스도 부록에 담았다.

<Gyeongju>는 15권으로 완간된 한국 문화유산 답사 안내서 시리즈 돌베개의 <답사여행의 길잡이> 가운데 경주 편을 한국 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을 받아 영역한 책이다.

강지연 기자

<슈리 상카라차리아 주석의 바가바드 기타> 번역서 모든 베다가르침 진수 요약한 것



바가바드 기타
슈리 상카라차리아 지음, 김병채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시람 펴냄 | 2만5000원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를 슈리 상카라차리아가 주석한 <슈리 상카라차리아 주석의 바가바드 기타> 번역서가 나왔다. 788년 태어난 슈리 상카라차리아의 주석서는 현존하는 <바가바드 기타> 주석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인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는 슈리 상카라차리아는 힌두 종교의 바탕으로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을 확고하게 세웠다. "기타 사스트라는 모든 베다 가르침의 진수를 요약한 것이다. 그 가르침의 명료한 의미를 정하기 위해 간략한 주석서를 쓰기로 했다"고 슈리 상카라차리아는 말한다.

이번에 출간된 <바가바드 기타>는 슈리 상카라차리아가 주석한 것을 1987년 알라미 마하데바 사스트리가 영역한 작품이다. 1897년 첫 출판된 이래 상카라의 바가바드 기타 주석서에 관한 가장 뛰어난 영어 번역본으로 10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2	무엇이 나의 본래 면목이나	성철	정경각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5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행복한 미소	성민	계미
7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만	운주사
8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천화	상상예찬
9	하루 10분에 마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증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산 분, 사업을 하고 계산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산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의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 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자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慈悲力)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넣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한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구성이 뛰어나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지갑65,000원 여성용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다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외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사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사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다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제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삼고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외에 걸면 차안이 품위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8,000원
전화: (02)741-4477